2023학년도 학생이 만드는 교양교과목 제안서

<table>
<tr><td rowspan="2">인재상
(해당란에 ☑)</td><td colspan="11">미래사회혁신을 주도하는</td></tr>
<tr><td colspan="4">☐ 도덕적 인재</td><td colspan="4">☐ 협력적 인재</td><td colspan="3">☑ 실천적 인재</td></tr>
<tr><td rowspan="4">핵심역량
(해당란에
비율 기재)</td><td colspan="2">창의</td><td colspan="2">융복합</td><td colspan="2">소통</td><td colspan="2">협력</td><td colspan="2">도전</td><td rowspan="2">총합</td></tr>
<tr><td>창의적 사고력</td><td>비판적 • 분석적 사고력</td><td>융합적 사고력</td><td>문제 해결력</td><td>의사 소통 능력</td><td>공감 능력</td><td>공동체 의식</td><td>문화적 관용성</td><td>자율적 행동력</td><td>리더십</td></tr>
<tr><td>%</td><td>30%</td><td>%</td><td>%</td><td>60%</td><td>10%</td><td>%</td><td>%</td><td>%</td><td>%</td><td>100%</td></tr>
<tr><td colspan="11">※ 핵심역량 총합이 100%가 되어야 하며, 핵심역량 2개(세부역량 3개) 이내 기재할 것: 가장 밀접한 하나의 핵심역량(창의, 융복합, 소통, 협력, 도전 중 하나)은 50% 초과로 기재
예시) 소통역량 80%(의사소통능력50%, 공감능력 30%), 협력역량 20%(공동체의식20%)</td></tr>
<tr><td rowspan="2">교양
교과목
개발 제안
사유</td><td>제안
배경</td><td colspan="10">'우리는 말을 잘 하는가?'
대학교에 다니며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수업은 아이러니하게도 고등학생 때 가장 싫어했던 과목인 '말하기 수업'이었다. 암기, 계산, 내용 정리 등 공부와 관련한 어떤 역량이든 갖추고 있다고 자부했으나, 발표 수업에서만큼은 굉장히 위축되었다. 팀 프로젝트를 할 때, 떠오르는 생각은 많았으나 근거를 들어 명료하게 전달하기가 어려웠고, 발표 중에는 목소리가 덜덜 떨려 뛰쳐나가고 싶었던 적이 많았다. 말하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같은 학교 학생 중 10명 중 8명 꼴로 말하기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팀 프로젝트, 발표 수업을 거쳐 졸업 필수 과정인 캡스톤 발표까지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말하기 능력'은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하다. 사회인으로서 자리매김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상대방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논리적이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작년, 말하기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친구들과 함께 찾아보았지만 토론 동아리나 개설 교과목의 부재를 느낄 수 있었다. 단 하나 비교과 활동으로 제공되는 '발표 및 스피치' 온라인교육이 있었으나, 2시간가량의 온라인교육으로는 말하기 및 표현법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우리가 제안하는 <발표와 토론으로 배우는 말하기>는 우리 학교의 말하기 교육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td></tr>
<tr><td>개발
목적</td><td colspan="10">1. 공적 말하기 수업의 필요성
스스로 말하기 경험을 하고 평가받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면 학점으로 평가받는 것이 전부이며, 구직 인터뷰를 진행해도 합격 또는 불합격 결과만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말하기 능력을 점검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다수의 청중으로부터 나의 말하기를 점검받는 것은 흔하지 않은 경험이다. 이러한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는 대학 교양수업이 있다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의 말하기 교육의 부족</td></tr>
</table>

우리는 ‘말하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있을까? 중학교 교육과정에는 국어 단일 교과서에 ‘말하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말하기를 배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분량이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에도 ‘화법’이라는 이름으로 수업이 개설되어 있으나, 실제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문학>독서>>작문>>>>화법의 비중으로 되어있다. 이는 수능 국어에서 문학과 독서는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되나, 화법의 경우 모두가 납득할만한 쉬운 수준에서 출제되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 교과목에서 말하기 교육이 경시되는 까닭은 ‘평가가 어렵다’는 데에 있다. 말하는 기준을 평가하는 척도가 모호하고, 평가자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말하기’의 중요성은 현저히 낮다. 무한경쟁 사회에서는 가시적인 성장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말하는 연습을 할 시간에 문학 지문 하나를 더 읽으면 성적이 오르는 교육체제에서, 말하기 교육이 학생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은 결코 놀랍지 않다.

대학 교육의 의의는 중·고등학교 교육의 부족한 점을 메꾸고 사회인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데 있다. 이것이 대학 교양수업으로 말하기 수업이 개설되어야 하는 이유다.

3. 대학 수업에서의 말하기 교육의 부족

서구의 스피치 문화가 도입되면서 말하기 능력이 주목받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우리나라 대학 교육도 많이 변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로 글쓰기에 치중되어있고, 체계화된 말하기 교육이 부족하며,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전은진, 2012) 실제로 우리나라의 교과목에는 글쓰기 과목에 비해 말하기 교육과 관련한 교과목이 현저히 적으며, 그 교과목마저도 말하기의 중요한 요소인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교육과 동료 평가와 같은 요소는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 (이소현, 2016) 글쓰기 교육만큼이나 중요한 ‘말하기’ 교육은 필요성이 강한 만큼, 그 교육의 질이 좋아야만 할 것이다. <발표와 토론으로 배우는 말하기>에서는 수사학, 커뮤니케이션학 이론을 기본으로 탄탄한 말하기 교육을 제공한다.

3. 다양한 상황에서의 말하기

우리는 어떤 말하기에 익숙한가? 미성년자에서 벗어나 성인이 되어 마주한 세상에는 이전엔 경험하지 못한 여러 상황이 존재한다. 학생회, 동아리, 수업시간, 발표회, 특강, 교외 활동, 회의시간, 면접 인터뷰 등 다양한 사회적 공간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에서 특정 사안에 관해 의견을 피력하고, 완곡하게 제안하고, 자신의 능력과 장점에 대해 어필하는 등 공적 말하기가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맥락이 존재한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사적인 말하기’가 아닌, 상대방의 공감과 이해를 끌어낼 ‘공적인 말하기’와 ‘토론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수업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의 말하기를 연습하며 매끄러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무비판적 수용의 위험성

정보화시대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개의 정보를 접하고 있다. 디지털화

<table>
<tr>
<td rowspan="2"></td>
<td></td>
<td>로 인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많아졌으나, 우리에겐 아직 수많은 정보를 판별하여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족하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타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무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보화 사회에서 진정 필요한 능력은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말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다. 나아가 이러한 비평을 직접 듣거나 발화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토론을 통해 타인이 언급한 비판점을 수용하여 스스로를 점검하고, 타인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전은진. (2012). 대학생 말하기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인문과학연구, 32, 167-191.
이소현. (2016). 대학생 말하기 향상을 위한 준언어적 구성 요소와 교육 방법에 대한 모색: 발표를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79, 251-287.</td>
</tr>
<tr>
<td>기대 효과</td>
<td>1. 공적 말하기, 의사소통 능력 배양
2. 말하기의 언어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 배우기
3. 토론을 통한 비판적 사고 함양</td>
</tr>
<tr>
<td>교과목 개요</td>
<td colspan="2">이 교과목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며, ‘공적 말하기’와 ‘토론’을 학습한다. 이론을 통해 논리적으로 말하는 기술과 명확한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토론의 기본 개념과 형식을 이해하고, 토론을 통해 논리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실습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며, 다양한 관점을 이해한다. 토론에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빙성 있는 증거와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해를 넓혀 다양한 시각에서 토론을 진행한다. 논리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논거와 근거를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는 말하기를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 및 공적 말하기 능력을 증진한다.</td>
</tr>
<tr>
<td>교내 개설 교과목과의 차별성</td>
<td colspan="2">교내 개설 교과목 중 ‘공적 말하기’와 ‘토론’이 주요하게 다뤄지는 교과목은 없다. 필수교양인 <비판적 사고>의 구 이름은 <논리와 토론>이지만, 실제 이 수업은 논리학에 치중되어있으며, 수사학에 대해 배우거나 토론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강의 계획서에 ‘토론’이 언급된 교과목은 22과목이지만, 명목상 쓰여 있을 뿐 실제 토론을 진행하지 않는 교과목이 대다수이다. 일부 교과목에서는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온라인 토론으로 말하기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예로 ‘문학으로 읽는 전쟁과 평화’ 교과목의 경우, 비대면으로 토론을 진행하며, 특정 개념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오거나 단순 의견 및 근거 제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발표와 토론으로 배우는 말하기>에서는 말하기와 토론을 학습의 도구로써 사용하기보다, 수사학의 관점에서 접근해 ‘공적 말하기’를 전문적으로 배운다. 말하기의 이론을 학습하고 실습한다는 점, 토론 기술을 익히고 연습하며 논리적 말하기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개발한다는 점, 다른 의견에 공감하며 분석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내 개설 교과목과 확연한 차별점을 갖는다.
따라서 <발표와 토론으로 배우는 말하기>에서는 이론 수업 10% + 피드백 10% + 실습 80%의 비중으로 학생 스스로가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논리적 말하기 능력 향상, 토론 기술 습득 및 비판적 사고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td>
</tr>
</table>

2023학년도 학생이 만드는 교양교과목 수업계획서

[수업정보]

교과목명 (영문명)	발표와 토론으로 배우는 말하기 (Speech: Presentation and Debate)			수업방식	대면(15주)
이수구분	교양선택	이수학점	3.0	사용언어	한국어
시간	월 3,4,5 (3시간)			선수과목	없음
수강대상 (권장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수강제한	없음				

[학습목표]

교과목 학습목표	
1	[의사소통 능력]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의 의견을 자신감 있게 표현한다. 이는 타인에게 효과적이고 논리적인 말하기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토론 방식의 말하기 수업을 통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논리적인 문장으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증진한다.
2	[비판적, 분석적 사고력] 다른 사람의 주장과 의견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토론 기술과 전략을 익히고 효과적인 논리적 토론을 끌어냄으로써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끔 한다.
3	[공감능력] 다양한 사회, 정치, 문화적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며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팀원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토론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경험을 통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운영방식]

수업형태 (O표시)	이론	실기	실험/실습	현장실습	사이버강좌		
					블랜디드러닝	플립 러닝	100%온라인
	O	O					
수업방법 (100%)	강의	개별발표	팀별발표	토의/토론	실습/실기	IU-CEL (지역연계학습)	PBL
	20%	40%	%	40%	%	%	%
	CBL	TBL	특강/세미나	견학 /현장학습	외부컨텐츠 활용	가상/증강현실학습	
	%	%	%	%	%	%	
	기타	- 이론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 설득스피치 및 토론을 진행 - 기말고사 후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으며 도움이 되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팀별로 정리하여 각자 활동에 대한 성장 경험 및 성찰을 발표하도록 진행.					
	수업진행 추가설명	●중간고사(40%) : 개인 설득스피치 발표 (동료평가 70%+교수평가 30%) 평가요소: 스피치 구성, 비언어적 표현, 설득력, 전달력 등을 평가 ●기말고사(40%): 2:2 토론 진행 (관중평가 70% + 교수평가 30%) 평가요소: 학생이 작성한 토론 평가표를 바탕으로 평가. 참관자가 논리적인 말하기, 논쟁의 품질, 논거 및 반론의 품질 등에 해 평가. ●수업 참여도(10%): 수업 참여도를 평가.					

[주차별 수업계획]

1 주차	주요학습내용	<수업 개요> 1. 수업 진행 방식 소개 2. 말하기와 표현의 중요성 소개 3. 실습: 1분 즉석 자기소개
	수업방법	강의 및 실습 **과제1**: 나의 말하기 성찰하기 (왜 나는 말을 잘하고 싶은가에 대한 성찰)
2 주차	주요학습내용	<말하기의 목적> 1. 공적 말하기는 무엇인가? 2. 우리는 왜 말을 잘 하고 싶은가? 3. 실습: 내가 말을 잘하고 싶은 이유 발표(**과제1**)
	수업방법	강의 및 실습 **과제2**: 나의 발표불안 성찰하기
3 주차	주요학습내용	<발표불안> 1. 발표불안이란? 2. 발표불안을 극복하는 방법 3. 실습: 발표불안에 대한 경험 발표(**과제2**)
	수업방법	강의 및 실습
4 주차	주요학습내용	<논리 체계 학습> 1. 연설문(설득하는 말하기)의 정의와 짜임새 2. 논설문(주장하는 말하기)의 정의와 짜임새
	수업방법	강의
5 주차	주요학습내용	<설득 스피치 준비> 1. 스피치의 목적과 주제 정하기 2.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3. 청중 분석
	수업방법	강의 및 영상자료(대학생 발표 동영상 분석) **과제3**: 개인 스피치 주제 선정 – 코스모스 게시판에 공개 업로드
6 주차	주요학습내용	<설득의 수사학> 1. ‘설득’이란 무엇인가 2. 대중을 설득하는 요인 3. 말하기 원고 작성과 실행개요서 작성 방법
	수업방법	강의 및 영상자료(좋은 발표와 나쁜 발표의 예시 동영상) **과제4**: 개인 스피치 원고, 실행개요서 작성 – 코스모스 게시판에 공개 업로드
7 주차	주요학습내용	<윤리와 책임> 1. 말에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2. 사회 쟁점에 대한 말하기
	수업방법	강의 및 영상자료 시청(공적 인물의 연설 동영상)
8 주차	주요학습내용	**<중간고사>** **개별 설득스피치 발표 및 동료평가**
	수업방법	**실습**
9 주차	주요학습내용	<토론이란?> 1. 비판적 사고의 개념 및 중요성

		2. 토론의 목적 및 원리 이해하기
	수업방법	강의
10 주차	주요학습내용	<토론의 다양한 유형과 이해> 1. 토론의 유형 이해 (자유토론, 아카데미식 토론/사실토론, 가치토론) 2. 토론의 구성 이해 (입론, 교차조사, 반론) 3. 모의토론 주제 선정
	수업방법	강의 및 영상자료 **과제5**: 모의토론 준비 (※모의토론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11 주차	주요학습내용	<모의 토론> 1. 정해진 주제에 대한 모의 토론 진행 2. 동료평가 및 피드백
	수업방법	실습
12 주차	주요학습내용	<토론 준비> 1. 토론 주제 선정 2. 조별 활동
	수업방법	강의 및 실습
13 주차	주요학습내용	<토론 평가표 작성> 1. 청중의 역할 2. 실습 – 토론 평가의 기준 정하기
	수업방법	강의 및 실습
14 주차	주요학습내용	**<기말고사>** **2:2 토론 진행 및 동료평가**
	수업방법	**실습**
15 주차	주요학습내용	<수업 갈무리> 1. 토론 평가 피드백 공유 2. 한 학기 동안 자신의 '말하기 성장'에 대한 경험 나누기
	수업방법	자유 형식